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8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http://www.chungpa.or.kr)

#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 후 제21주】

전 주 .....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	주의 전에 나올 때 .....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 경배의 찬송 ..... 34. 전능왕 오셔서 ..... 다함께

♠ 공동기도 ..... 다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던 저희들이 목자이신 주님의 부름을 듣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길을 헤매느라 지쳤습니다.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면서 우리 마음에는 시커먼 멍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평화가 그리웁습니다. 지난날의 우리 죄를 다 용서해주시고, 다시 한번 ‘너희는 내 것’이라고 속삭여 주십시오.

석양에 기우는 그림자처럼 적막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바칩니다. 쇠빛장처럼 강고한 우리의 자아를 깨뜨려 주시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속정 깊은 사람이 되어 이 냉랭한 세상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 다함께

♠ 위로의 말씀 ..... 시121:5-6 ..... 인도자

♠ 교 독 문 ..... 29. 시편130편 ..... 다함께

♠ 영 광 송 ..... 6. 찬양 성부 성자 성령 ..... 다함께

대표기도 ..... I. II. 조병무 장로

응 답 송 ..... 찬양대

찬 송 ..... 218.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 다함께

성경봉독 ..... I. II. 삼하15:17-23 ..... 박범희 집사

찬 양 ..... 찬양대

말 씬 ..... I. 김재흥 목사

..... II. 사람도 고향이다 ..... 김기석 목사

거둬기도 ..... 다함께

- 헌신의 찬송 ..... 505.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 다함께
- 헌금봉헌 ..... 다함께
- ♠ 봉 헌 송 ..... 69. 나 가진 모든 것(1,2) .....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 인도자
- 공동체 소식 .....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품이 넓은 사람이 되어 언제든 외롭고 지친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십시오. 하늘의 빛으로 일상의 모든 순간을 비추며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초대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둠의 한복판에서도 빛을 보고, 절망의 심연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우리에게 숨기지 말아주십시오. 아멘.

- ♠ 결단의 찬양 .....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 다함께
- ♠ 축 복 .....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b>주일 오후 집회</b>	<b>수요 집회</b>
제5회 신앙강좌	성서로 배우는 평화/김기석 목사
정희수(북 일리노이 연회) 감독	기도 : 윤수진 집사

<b>다음 주 예 배 위 원</b>	<b>설교</b>	<b>기도</b>	<b>성경봉독</b>
	김기석 목사	한완식 장로	박애순 집사

<b>10월</b>	영접위원	구성실	김중수	박병희	이순정	고숙이	박미영
	헌금위원	한완식	김인걸	김용진	최영혜	장혜숙	박홍재

## 베푼, 인간 존엄함의 일부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신명기>의 “반드시 네 손을 그 **가난한 자**에게 펴서 그에게 없는 것 중에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넉넉히 주라”(15장 8절)라는 구절이다. 랍비들은 이 대목에서 베푼(선물)과 꾸어쭈(대여)의 의미를 모두 읽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여기서 서로 다른 종류의 빈곤을 읽어냈다는 점이다.

‘필요한 것을 넉넉히’라는 구절은 네가 그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미일 뿐 그를 부자로 만들어줘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에게 없는 것’이란 타고 갈 말이나 앞서 뛰어갈 하인을 뜻하기도 한다. 랍비 힐렐(기원전 1세기 유대 공동체의 지도자)은 선량한 가족의 가난한 남자에게 타고 갈 말과 앞서 뛰어갈 하인을 사주었다고 한다. 한 번은 앞서 뛰어갈 하인을 찾을 수 없었기에 그가 몸소 10리나 앞서 뛰어갔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빈곤에는 두 종류가 있다. 첫 번째(‘그가 필요한 것을 넉넉히’)는 최저 생활수준을 가리킨다. 이는 유대 율법에서 음식과 주거와 기본 가구나 결혼식 비용 등을 의미했다. 두 번째(‘그에게 없는 것’)는 상대적 빈곤을 뜻한다. 여기서 상대적이라 함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예전 생활수준에 대해 상대적이라는 뜻이다. 이는 랍비들이 빈곤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열쇠가 무엇인지를 처음으로 시사해주는 대목이다. 사람에게는 단순한 물리적 욕구 이상의 심리적인 욕구가 있다는 인식이다. 가난은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좋은 사회는 그런 수치를 겪지 않게 하는 사회다.

유대 율법은 인간의 존엄함을 보호하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예를 들어, 랍비들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소박한 장례식을 치러주어야 한다는 규칙을 두었는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축제일에도 부잣집 소녀들은 좋은 옷이 “없는 소녀들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도록” 빌린 옷을 입어야 했다. 랍비들은 아무도 공동체의 축제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종교 필수품의 가격을 낮추는 일에도 개입했다. 또한 고용인들의 기본 권리를 존중

하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이니라”(레25:55)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증거였다. 자유는 자존감을 전제하며, 자유로운 사회는 바로 그 인간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사회이다.

자존감을 지키는 데 필요한 한 가지가 독립성이다. 여기서 **체다카** 규범의 중요한 측면이 드러난다. 마이모니데스는 다양한 수준의 베품을 열거하는데, 하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자선 행위이다. 그러나 가장 훌륭한 행위는 자선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거나 돈을 꺾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장사 동료로 받아들이거나 그에게 일자리를 주선해주는 사람, 한마디로 말해서 그가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살아가게 해주는 사람이 제일 훌륭하다. 이에 관한 성경 말씀은 이러하다. “그에게 힘을 주고 그가 이방인이나 정착자로서 너와 함께 살게 할지이다.”(레25:35) 이는 그를 강하게 하여 다시는 빈곤한 상태로 추락하지 않게 막아야 한다는 뜻이다.

이러한 판단은 유대교 내에서 자선의 형태로 도와주는 일도 수혜자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고민한 결과이다. 자선은 또한 이른바 생계 의존성 welfare dependency을 만들어내고 빈곤의 악순환을 끊기는 커녕 강화한다. 그러므로 어려운 사람을 자립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체다카**의 가장 위대한 면이다. 다시 말해 남의 도움 없이 살아가게 해주는 일이 가장 훌륭한 도움이다. 단기적으로는 인도주의적인 도움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다.

특히 매혹적인 유대 율법의 세부 규정이 한 가지 더 있다. **체다카**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체다카**를 베풀어야 한다는 규정이다. 표면 상으로는 부조리한 규정이다. 왜 Y에게 돈을 나눠줄 수 있을 만큼 많은 돈을 X에게 주는가? 그냥 직접 Y에게 주는 게 더 논리적이고 효율적이다. 그러나 랍비들은 **베품이 인간 존엄함의 본질적인 일부**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었다. 아프리카에는 ‘베푸는 손이 으뜸이고 받는 손은 열등하다’는 속담이 있다. 공동체가 가난한 자에게 충분한 돈을 주어서 그들 역시 베풀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랍비들은 생각은 인간의 조건에 대한 깊은 통찰을 반영한 것이다.

## ■ 마/음/으/로/위/는/글

### 아름다운 관계

바위 위에 소나무가 저렇게 싱싱하다니  
사람들은 모르지 처음엔 이끼들도 살 수 없었어  
아무것도 키울 수 없던 불모의 바위였지  
작은 풀씨들이 날아와 싹을 틔웠지만  
이내 말라버리고 말았어  
돌도 늙어야 품안이 너른 법  
오랜 날이 흘러서야 알게 되었지  
그래 아름다운 일이란 때로 늙어갈 수 있기 때문이야  
흐르고 흘렀던가/바람에 쓸씨 하나 날아와 안겼지  
이끼들과 마른풀들의 틈으로  
그 작은 것이 뿌리를 내리다니  
비가 오면 바위는 조금이라도 더 빗물을 받으려  
굳은 몸을 안타깝게 이리저리 틀었지  
사랑이었지 가득 찬 마음으로 일어나는 사랑  
그리하여 소나무는 자라나 푸른 그늘을 드리우고  
바람을 타고 굽이치는 강물 소리 흐르게 하고  
새들을 불러모아 노랫소리 들려주고  
  
뒤돌아본다/산다는 일이 그런 것이라면  
삶의 어느 굽이에 나, 풀꽃 한 포기 위해  
몸의 한편 내어준 적 있었는가 피워본 적 있었던가(박남준)

###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틀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 헌 금 영 수 기 ◇

### 십일조헌금:

강인식 김정수 김준호 관혜자 김용길 최영혜 김정길 최수화 김필순  
 배근수 김김수 김승민 관유명 김박명 김병구 박이영 장광 김허형 김정인 최박종 최홍병 화염무 김신승  
 안정숙 이봉익 이선내 이한림 김명희 김병구 박이영 장광 김허형 김정인 최박종 최홍병 화염무 김신승  
 권미숙 장민숙 박시내

### 월정헌금:

김성자 김종문 지명주 김종철 고영애 문금석 박병구 박석희 송임회  
 윤성종 김윤정 윤주원 최윤선 이갑재 이갑섭 전영자 조순덕 황경순

### 감사헌금:

왕성환 강순배 박시내 문금석 조항범 오현정 박숙화 허경기 오정숙  
 무명3

생일감사헌금: 권호천 배삼순 고은숙 최숙화 김정길 하진솔

### 캄보디아 우물헌금:

정미경 이한림 김명희 한완식 임정자 윤미경 이종현  
 (100주년 헌금 누계 : 119,830,000원)

##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장혜숙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안디옥	임정자	이춘희		
가나안	문영혜	박경선		
갈릴리	안정숙	박애순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시온	박효선	허정윤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나사렛	백혜숙	정옥영		
갈라디아	송양진	유경순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신앙강좌** : 오늘 오후 2시부터 2007년 제5회 신앙강좌가 열립니다. 미국 북 일리노이 연회의 정희수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2. **추수감사절** : 우리교회는 11월 첫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일년을 차분히 돌아보며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3. **목회계획세미나** : 22일부터 23일까지 중구용산지방 교육부가 주관하는 목회계획 세미나가 있습니다. 담임목사가 다녀오겠습니다.
4. **나들이** : 속장·인도자들과 봉사자들이 22일 유명산으로 하루 나들이를 떠납니다.
5. **신앙실천** : 하루에 30분 이상씩 홀로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 식당 봉사 :

\* 캄보디아 우물 기부 신청자 :

##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 년 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